즉시 배포용: 2020년 6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및 MELISSA DEROSA 코로나19 출산 태스크포스 의장,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조산자가 주도하는 출산 센터의 이용량 증가 발표

DOH는 추가 출산 센터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브루클린 출산 센터 및 레푸아 헬스 센터 등 두 곳의 임시 출산 센터 승인

*권고사항 검토 결과 **DOH**는 **28**조 보건 시설로 인정하여 조산사 출생 센터 신청 승인*

Andrew M.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코로나19 출산 태스크포스(New York State COVID-19 Maternity Task Force) 의장인 Melissa DeRosa 비서관은 오늘 주지사가 처음으로 뉴욕에서 조산사가 주도하는 출산 센터를 승인하도록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에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출산지를 다양화하고 환자의 선택을 지원하는 이 지침은 4월에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코로나19 출산 태스크포스의 6가지 주요 권고사항중 하나였습니다. 주지사의 지침은 출산을 앞둔 여성들에게 진통 및 출산과 관련하여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DOH는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Law) 제28조에 의거하여 조산 출생 센터에 대해 허용 증명(Certificate of Need, CON)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의 삶에 전례 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져왔습니다. 부모들은 이 바이러스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임신 과정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산 태스크포스는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출산을 앞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일련의 권고사항을 신속하게 작성했습니다. 뉴욕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여 산모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출산지 옵션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주 코로나19 출산 태스크포스의 의장인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의료 시스템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례 없는 수준의 응급 치료를 제공하고 부모들이 출산 시 양질의 건강 시설을 이용할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조산사 주도의 출산 센터를 뉴욕주 보건부 관할에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그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지하며, 임산부가 환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4월 태스크포스는 화상으로 회의를 갖고, 구성원들은 현재 면허를 가진 출산 병원 및 센터가 추가 출산 관련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설립하도록 승인하는 행정 명령을 선포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무담을 완화하고 출산 선택지를 늘리도록 Cuomo 주지사에게 권고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조산 서비스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향후 45일 이내에 뉴욕주에 조산 주도 출산 센터 설립을 위한 허가 과정의 최종 확정을 위해 보건부가 신속히 일을 진행하여 비상사태에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출산 시설을 확보할 것을 DOH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태스크포스는 뉴욕주 보건부에 지역사회 보건센터 및 연방 자격을 갖춘 보건센터 등 허가된 의료 시설에서 신청서를 받아 시설의 사용하지 않은 공간을 비상 상황에 진통 및 출산 전용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간소화 과정을 통해 뉴욕주 보건부는 코로나19 출산 태스크포스 권고 사항에 따라 뉴욕 브루클린의 브루클린 출산 센터(Brooklyn Birthing Center) 및 뉴욕 발할라의 레푸아 헬스 센터(Refuah Health Center) 등 두 곳의 신규 임신 출산 센터를 승인했습니다.

브루클린 출산 센터는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진단 및 치료 센터로, 코로나19 출산 태스크포스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아 맨해튼 재즈 출산 센터(Jazz Birthing Center of Manhattan)로 운영 중인 기존의 센터 브루클린 출산 센터의 확대합니다. 두 번째 장소에는 출산실 다섯 개가 설치되며,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레푸아 헬스 센터는 뉴욕 스프링 밸리에 위치한 제28조 진단 및 치료 센터이자 연방 면허를 가진 헬스 센터입니다. 레푸아는 비상 승인(Emergency Approval) 요청을 허가받아 주요 부지에 인접한 공간에 병상 네 개 규모의 출산 센터를 추가합니다. 레푸아 헬스 센터는 발할라의 웨스트체스터 의료 센터(Westchester Medical Center)와 서펀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Good Samaritan Hospital)에서 출산 환자들을 수용할 것입니다. 출산 센터는 임시 시설로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시에만 운영됩니다.

행정명령 202호에 따라 이러한 요청은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기간 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긴급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시설을 영구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경우 CON이 필요합니다.

필요 증명 절차에 대한 소개
뉴욕의 필요 증명 절차는 병원, 요양원, 양로원, 진단 및 치료 센터 등 보건 시설의 설립, 건설, 리노베이션, 주요 의료 장비 취득 등에 적용됩니다. CON 절차의 목표는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서비스가 지역 사회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CON에 따라 보건부는 병상 중복, 서비스 및 의료 장비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여 관련 의료 비용을 제한는 등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 시설과 마찬가지로 MBC는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 및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새로운 신청자를 지원하기 위해 MBC의 CON 신청 지침을 새롭게 작성했으며 그 내용은 CON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코로나19 모성 태스크포스 소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18년 4월에 뉴욕주의 모성 사망률과 인종간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출산 및 아동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뉴욕주의 노력을 계속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병원 인프라의 중대한 부담과 뉴욕주 전역의 많은 임산부의 우려를 인식하여,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에 뉴욕주 보건부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태스크포스를 소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가 의장을 맡은 태스크포스는 해당하는 경우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이미 압박이 심한 병원에 대한 안전한 대안을 어머니에게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조사하는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모성 및 유아 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적인 그룹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원격으로 만나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권고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의 긴급성과 임산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초기 권고사항을 작성하기 위해 1주일 이내에 태스크포스 회의가 열렸습니다. 권고사항은 보건부 직원이 집계하여 분석했으며, 태스크포스 구성원들과 공유하여 제출 내용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기 전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모성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원격 의료 및 모바일 클리닉에 대한 접근 확대
- 출산 과정과 회복 전반에 지원 담당자가 함께하도록 지시
- 급등 수용력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주의 산부인과 의사 및 조산사들이 뉴욕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
- 성적 및 생식 보건 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로 식별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